

《醉翁談錄》에 보이는 話本存目の 本事 고찰

李時燦*

◁ 목 차 ▷

- I. 머리말
 - II. 《취옹담록》에 보이는 話本存目과 그 가치
 - III. 話本存目の 本事 고찰
 - I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 송대 말기에서 원대 초기의 인물로 알려진 羅燁이 저술한 《취옹담록》은 중국소설사의 맥락을 짚는 과정에서 문인소설 위주에서 백화 혹은 통속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이다. 나엽의 생애는 현재까지 正史를 비롯한 다른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신분은 상층 문인의 계층에 속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나엽의 이러한 신분적 특징은 오히려 당시의 서민 혹은 대중 문화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취옹담록》은 당시 소설과 관련된 다른 저서들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매력과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맡으면서 상층부에 속한 문인들은 비록 소설을 창작하기도 하고 감상도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업이 아닌 여가 활동으로서의 취미 내지는 ‘末端之學’으로서의 관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옹담록》에 실린 내용은 소설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 직업인이 당시 소설계를 개괄하면서 소설이라는 문학장르를 적극

* 청주대학교 중국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전임강사

** 이 논문은 2011-2013학년도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그 시절 유행했던 작품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약 100여종 이상 열거하고 있어 오늘날 중국소설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문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醉翁談錄》의 전체 서문에 해당하는 〈小說引子〉와 〈小說開關〉이라는 두 편의 글이 중국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히 그 속에 보이는 話本存目이 지니는 연구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엽이 열거한 작품들 가운데 추적이 가능한 몇 가지 작품의 연원을 실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엽이 〈小說開關〉이라는 글에서 유형별로 분류한 話本存目は 대부분 송원시기 도시의 문화시장에서 유행했던 講唱文學과 관련한 이야기의 제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孫楷第·胡士瑩·譚正璧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나엽이 열거한 작품들의 연원을 점진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陳桂聲이 《話本敍錄》이라는 연구저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관련 논문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작품은 그 연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연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 결과 또한 재검토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취옹담록》에 수록된 話本存目 가운데 아직까지 그 연원을 밝히기 어려웠던 작품들에 대해 주제어 검색을 통하여 추적이 가능한 몇몇 작품의 연원을 고찰해 보고, 기존에 이미 연구가 된 작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통해 보충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결과물이 향후 관련 연구자들에게 한층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醉翁談錄》에 보이는 話本存目과 그 가치

1. 중국소설사를 개벽한 〈小說引子〉와 〈小說開關〉

《취옹담록》에 수록된 話本存目的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小說引子〉와 〈小說開關〉이라는 두 편의 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엽은 이 두 편의 글에서 오늘날 화본소설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話本存目は 물론이고 당시 소설가들이 지녀야 할 자질과 경륜, 그리고 소설이라는 장

르가 지니고 있는 효용과 가치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선 그의 주장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소설을 창작하고 전파하는 일은 그저 여가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거나 흥미만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전문적인 일이다. 둘째, 소설은 역사적 영웅이나 현세에 교훈이 될 만한 인물을 부각시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 줌으로써 충분히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소설은 다른 문학 장르의 주요한 요소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적 서사 문학 양식임과 동시에 나이와 연령, 학식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강한 예술적 감동을 줄 수 있다.

중국소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엽이 강조한 이러한 소설의 효용과 가치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이론이자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편의 글에 실린 내용은 소설을 그저 역사의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던 기존의 관념을 크게 탈피한 뛰어난 인식이었으며, 이와 궤를 같이하여 중국소설사의 흐름 또한 문언소설에서 백화소설로 물줄기가 크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나엽이 당시에 유행한 대표 작품으로 열거한 話本存目的是 바로 이러한 관념과 문화 위에서 선택된 과도기적 작품으로 그 연구 가치와 더불어 상징성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편에 실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글의 제목에 해당하는 ‘小說引子’의 뜻을 고찰해보면, 중국 宋元 시기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진 ‘話本’이라는 예술장르와 관련하여 청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본업으로 삼아 활동했던 소위 ‘說話四家’ 가운데 ‘小說家’가 구연하던 이야기의 형식 가운데 한 가지를 ‘引子’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引子’란 바로 이야기꾼이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들어가는 말’(入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小說引子〉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는 다시 작은 글씨로 ‘演史講經並可通用’이라는 注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說話四家’ 가운데 ‘소설가’뿐만 아니라 ‘演史’와 ‘講經’을 전문으로 하는 이야기꾼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小說引子〉의 끝부분을 보면 다시 작은 글씨로 ‘如有小說者，但隨意據事演說云云’이라는 注를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바로 ‘引子’를 마치고 나면 자유롭게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쉽게 들려주라는 의미이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의

미이다. 다시 말해서, '引子'라는 것은 화본소설의 형식 가운데 '入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小說引子〉는 '화본'과 관련된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당시 다른 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둘째, 〈小說引子〉에서 나엽은 《漢書·藝文志》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학을 필두로 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九流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소설을 아홉 번째에다 두고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아홉째, 소설가의 부류다. 이들은 일을 간언하는 機械의 관직에서 출발해 마침내 百官의 기록을 담당하는 일로 나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야기에 익숙한 자들이 나타나서 천하를 주유하며 百家의 이야기를 넘나들었다. 이들은 문혀 있던 아득한 옛날의 문장을 꺼내어 오늘날의 의론을 분명하게 만드는 재료로 삼았다. 그래서 혹은 演史로도 불리고, 혹은 合生으로도 불리고, 혹은 舌耕을 일컬어지고, 혹은 挑閃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근거가 있으니,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옛 현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본받을 수 있게 하고, 근래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경계로 삼게 했다. 실제에 근거하지 않음이 없으니 들어 보면 유익할 것이다. (九, 小說者流, 出於機戒之官, 遂分百官記錄之司. 由是有說者縱橫四海, 馳騁百家. 以上古隱奧之文章, 爲今日分明之議論. 或名演史, 或爲合生, 或稱舌耕, 或爲挑閃, 皆有所據, 不敢謬言. 言其上世之賢者可爲師, 排其近世之愚者可爲戒. 言非無根, 聽之有益.)¹⁾

이러한 언급은 중국학술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小說家者流'에 대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기존에는 《漢書·藝文志》에 보이는 '諸子十家' 가운데 볼 만한 것은 九家뿐이다. '諸子十家, 其可觀者九家而已'라는 짧지만 일종의 주홍글씨와도 같은 기록으로 인해 '小說家'는 소위 '三教九流'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범주에 들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

1) 羅燁 編, 이시찬 옮김, 《醉翁談錄》甲集 卷一 〈小說引子〉,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1년, 21-22쪽. 여기서 말하는 '演史'·'合生'·'舌耕'·'挑閃'은 모두 당시 설화인과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다. '演史'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구연하는 것이고, '合生'은 두 사람이 연출하는 것으로 한 사람이 어떤 사물을 가리켜 제목을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에 맞추어 시나 노래를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 '舌耕'은 이야기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재담으로 청중을 끄는 일종의 재주를 일컫는다. '挑閃' 역시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서 잠시 흐름을 멈추어 청중으로 하여금 조바심을 나게 하는 재주를 말한다.

고 말했다. 때문에 역대로 적지 않은 이들은 줄곧 ‘小說家’가 ‘九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나엽은 ‘小說家’를 ‘九流’의 지위에 분명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소설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역대 최초이자 송원 시기 소설에 종사하는 이들의 소설관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小說開關〉또한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小說引子〉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入話’에 해당한다.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講唱文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운문과 산문이 골고루 섞여가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끝부분 역시 ‘唱’을 할 수 있는 ‘七言詩’로 마무리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소설의 가치와 효용, 또 이야기를 본업으로 하는 소설가들의 능력을 긍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결국 甲集 〈舌耕敍引〉에 실린 〈小說引子〉와 〈小說開關〉이라는 두 편의 글은 어떤 이야기꾼이 본격적인 이야기(正話)를 하기 전에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는 ‘들어가는 말’(入話)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

넷째, 〈小說開關〉의 내용은 중국학술사에서 소설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한 〈小說引子〉의 내용을 이어서 소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독서량과 식견 및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소설가는 어려서부터 방대하기로 소문난 《太平廣記》나 《夷堅志》는 물론이고 《東山笑林》과 같은 우스개 이야기부터 남녀의 애정과 관련된 이야기만 따로 모아놓은 《綠窓新話》의 내용까지 거의 모든 제재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백, 두보, 구양수, 소식, 황정견과 같은 문장가들의 시도 폭넓게 공부해야 하고, 조그마한 이야기도 수천 회로 늘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비범한 재주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는 산천초목의 이름과 각 지방의 지리와 역사에도 밝아야 한다고 강조한다.²⁾ 그러면서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들을 제재별로 분류한 후 대표되는 작품들을 수록해 놓았는데 필자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결과물의 상당 부분을 《태평광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나엽이 열거한 구체적인 話本存目과 그 가치들은 절을 바꾸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2) 羅燁 編, 이시찬 옮김, 앞의 책, 26-28쪽 참고.

2. 〈小說開闢〉에 수록된 話本存目的 연구 가치와 중요성

나엽은 〈소설개벽〉에서 당시 유행하던 이야기를 모두 8가지로 분류한 후 모두 107편을 수록해 놓았는데 우선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靈怪】

楊元子 汀州記 崔智韜 李達道 紅蜘蛛 鐵囊兒 水月仙 大槐王
妮子記 鐵車記 葫蘆兒 人虎傳 太平錢 芭蕉扇 八怪國 無鬼論

【煙粉】

推車鬼 灰骨關 呼猿洞 鬧寶錄 燕子縷 賀小師 楊舜俞 情脚狼
錯還魂 側金盞 刁六十 鬪車兵 錢塘佳夢 錦莊春遊 柳參軍 牛渚亭

【傳奇】

鶯鶯傳 愛愛詞 張康題壁 錢榆罵海 鴛鴦燈 夜遊湖 紫香囊 徐都尉
惠娘魄偶 王魁負心 桃葉渡 牡丹記 花萼樓 章臺柳 卓文君 李亞仙
崔護覓水 唐輔採蓮

【公案】

石頭孫立 姜女尋夫 憂小十 驢屎兒 大燒燈 商氏兒 三現身 火杵籠
八角亭 藥巴子 獨行虎 鐵秤槌 河沙院 戴嗣宗 大朝國寺 聖手二郎

【朴刀】

大虎頭 李從吉 楊令公 十條龍 青面獸 李鐵鈴 陶鐵僧 賴五郎
聖人虎 王沙馬海 燕四馬八

【捍棒】

花和尚 武行者 飛龍記 梅大郎 鬪刀樓 攔路虎 高拔釘 徐京落章
五郎爲僧 王溫上邊 狄昭認父

【神仙】

叟神記 月井文 金光洞 竹葉舟 黃糧夢 粉合兒 馬諫議 許岩
四仙鬪聖 謝漉落海

【妖術】

西山聶隱娘 村鄰親 嚴師道 千聖姑 皮篋袋 驪山老母 貝州王則
紅線盜印 醜女報恩

위에 열거된 작품들은 대부분 이미 소실되어 그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위의 작품들은 중국소설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들로 송대 당시 화본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가령 《취옹담록》 각 권에 원문과 함께 실려 있는 작품 가운데 唐宋 시기의 傳奇나 詩話, 筆記 등에서 節錄한 작품들로 〈王魁負心桂英死報〉·〈紅綃密約張生負李氏娘〉·〈樂昌公主破鏡重圓〉·〈李亞仙不負鄭元和〉·〈韓翹柳氏遠離再會〉 등이 보인다. 이것은 바로 위에 열거한 話本存目 가운데 〈王魁負心〉·〈鴛鴦燈〉·〈徐都尉〉·〈李亞仙〉·〈章臺柳〉의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바로 우리는 이를 통해 〈小說開闢〉에서 存目만 열거되어 있던 작품의 당시 텍스트 모습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명대에 간행된 화본소설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분명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아마도 그 전단계인 과도기적 텍스트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話本存目이 지닌 가치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朴刀’와 ‘捍棒’류에 포함된 〈石頭孫立〉·〈李從吉〉·〈靑面獸〉·〈花和尚〉·〈武行者〉·〈王溫上邊〉 등의 작품으로, 이 작품들은 모두 훗날 《水滸傳》에 나오는 인물들의 원형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水滸傳》과 같은 장편소설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개별 인물을 중심으로 단편 이야기가 창작되었고 크게 유행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小說開闢〉은 큰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수록된 목록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위의 話本存目 외에도 뒤이어 수록된 내용들 가운데 기존 연구자들의 고찰에 의하면, 나엽이 〈小說開闢〉에 열거한 것으로 ‘說征戰有劉項爭雄’ 구절은 당연히 유방과 항우가 서로 힘을 겨루던 이야기로 훗날 《楚漢志》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또 ‘論機謀有孫龐鬪智’는 《七國春秋平話》의 前集 내용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七國春秋平話》 後集의 첫 페이지에서 이 이야기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발전해서 《孫龐鬪志演義》가 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新話說張·韓·劉·岳’은 송나라의 명장들이었던 張浚·韓世忠·劉錡·岳飛 등이 金나라에 대항하여 싸우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훗날 《中興名將傳》이 탄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三國志諸葛亮雄才’는 당연히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제갈량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송시기에 이르면 이미 길거리에서 《삼국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꾼이 구연했다는 기록들이 보인다.³⁾ 그리고 역시 북송시기 문헌인 《東京夢華錄》에는 〈說三分〉을 구연했던 전문 설화인으로 ‘霍四究’라는 이름이 보인다. 즉 송대에는 이처럼 많은 소설들이 이야기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창작되고 구연되기 시작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소설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취옹담록》에 열거된 話本存目에 대한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文言小說이 주류를 이루던 唐代로부터 白話소설이 태동하는 과도기이자 기존에 상층 문인들이 주로 감상했던 소설작품을 일반 대중에게로 확대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흔히 ‘四大奇書’라 불리는 《三國志》·《水滸傳》에 나오는 인물들의 원형과 개별 이야기들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밖에 《西遊記》 또한 송대에 편찬된 《大唐三藏取經詩話》로부터 발전된 것이며, 《金瓶梅》도 《수호전》의 내용으로부터 파생된 작품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宋代는 중국소설사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기로 《취옹담록》에 수록된 話本存目を 더욱 면밀하게 고찰해보면 새롭고도 값진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작품들과 기존에 연구가 되었더라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작품들의 本事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3) 蘇軾의 《東坡志林》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 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는데, 집안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두고 옛날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저 있다.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즐거워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곧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司馬光의 《資治通鑒》을 대본으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東坡志林』曰: “塗巷中小兒薄劣 其家所厭苦 輒與錢, 令聚坐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鬢蹙有出涕者, 聞曹操敗, 即喜唱快. 此其羅氏演義之權輿乎. 今以陳壽史傳溫公通鑒聚衆講說, 人未必有出涕者. 此通俗小說之所以作也.) 김만중 지음, 심경호 옮김, 《西浦漫筆》(하), 2010년, 654-655쪽.

Ⅲ. 話本存目の 本事 고찰

1. 鐵甕兒

《취옹담록》 甲集 〈소설개벽〉에 보이는 이 작품은 ‘靈怪類’로 분류되어 있다. 孫楷第는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이 작품은 이미 망실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⁴⁾ 그리고 胡士瑩은 《話本小說概論》에서 이 이야기는 《태평광기》 318권에 인용된 《稽神錄》의 〈彭虎子〉인 듯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⁵⁾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팽호자는 젊었을 때 근력이 셋으며 늘 귀신은 없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박수가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아무 날에 煞이라는 凶神이 틀림없이 와서 마구 사람을 죽일 테니 반드시 집을 나가 피해있어야 하오.”

그 말에 집안의 부녀자와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 피신했으나, 팽호자만은 도망가지 않고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 날 밤에 어떤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와 동서로 다니면서 사람을 찾았으나,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안으로 들어와 여막 쪽으로 다가왔다. 팽호자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침상 머리에 독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널빤지로 머리를 덮었다. 팽호자는 어머니가 널빤지 위에 앉는 것을 느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다. “널빤지 밑에 사람이 없소?” 어머니가 아무도 없다고 하자, 흥신은 무리들을 이끌고 떠나갔다. (彭虎子, 少壯有膂力, 常謂無鬼神. 母死, 俗巫誡之云: “某日殃煞當還, 重有所殺, 宜出避之.” 合家細弱, 悉出逃隱, 虎子獨留不去. 夜中, 有人排門入, 至東西屋, 覓人不得. 次入屋, 向廬室中. 虎子遽遽無計, 牀頭先有一甕, 便入其中, 以板蓋頭. 覺母在板上, 有人問: “板下無人耶?” 母云: “無.” 相率而去.)⁶⁾

〈彭虎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지나치게 짧고 간단할 뿐만 아니라 정작 제목과 관련이 있는 ‘鐵甕’에 대한 서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호사영의 주장과 근거에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 필자가 ‘鐵甕’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태평광기》 400권에 수록된 〈蘇邊〉이야기와 관련성

4)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 人民文學出版社, 1982, 4쪽.

5)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中華書局, 1980, 237쪽.

6) 김장환 옮김, 앞의 책, 13권, 515쪽.

이 깊어 보인다.

[唐나라] 天寶연간에 長安 永樂리에 한 흥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망했기에 나중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잠시 머문 사람도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었다. 결국 그 집은 황폐해지고 허물어져서 단지 대청만 남아 있었고 초목이 자라나 매우 무성했다. 扶風 사람 蘇邇은 뜻을 얻지 못해 매우 빈곤했는데, 그 집에 관한 사실을 알고 집주인에게 짤값에 집을 살 수 있냐고 물었다. 소알은 계약서만 쓰고 아직 주인에게 돈은 주지 않고 있었다.

밤이 되자 소알은 평상 하나를 들고 와서 대청에 놓고 잠을 잤다. 一更이 지난 뒤에 소알은 잠이 오지 않자 대청을 나와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동쪽 담 밑에서 사람 모습을 한 붉은 물체가 나타났는데, 손과 발이 없고 속이 투명하여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물체가 외쳤다. “이놈!” 소알은 보고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또 이전처럼 소리쳤다. “썩은 나무, 이놈!” 서쪽 담 밑에서 어떤 물체가 대답했다. “네.” 붉은 물체가 물었다. “어떤 사람인가?” 썩은 나무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붉은 물체가 또 말했다. ‘크고 단단하며 금속 소리가 난다.’ 썩은 나무가 대답했다. “무섭습니다.” 한참 뒤에 붉은 물체가 사라졌다.

소알은 계단을 내려와 정원 가운데서 썩은 나무를 부르며 말했다. “金精은 마땅히 나에게 속하는데, 어째서 감히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썩은 나무가 대답했다. “몰랐습니다.” 소알이 또 물었다. “예전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디에 있느냐?” 썩은 나무가 말했다. “다른 물건은 없고 단지 금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복이 없어서 여기에 머물기가 마땅치 않아 목숨을 잃은 것이지 죽인 적은 없습니다.”

날이 밝자 더 이상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소알은 직접 가래를 빌며 먼저 서쪽 담 아래를 봤다. 3척쯤 파 들어가자 썩은 기둥이 나타났는데, 나무속이 핏빛처럼 붉고 돌처럼 단단했다. 나중에 또 동쪽 담 아래를 이틀 동안 파서 1장쯤 들어갔더니 1장 4촌의 넓이에 1장 8촌 길이의 네모난 돌이 나타났다. 돌 위에는 다음과 같은 篆書가 썩어 있었다. “夏나라 천자께서 紫磨金 30근을 덕이 있는 사람[有德]에게 하사한다.” 이에 소알은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또 스스로 헤아려 보며 말했다. “내가 이 보물을 얻은 후에 덕을 쌓아도 재앙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소알은 고심하며 결정하지 못했다. 밤이 되어 소알이 탄식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썩은 나무가 갑자기 말했다. “군자께서 저를 昆明池로 보내주신다면 이제 당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소유덕은 그러겠다고 했다. 다음날 새벽에 소유덕이 다시 1장 남짓 파 들어가자 쇠 항아리[鐵甕]가 나왔는데, 열어보았더니 자마금 30근이 들어 있었다. 이에 소유덕은 짤값을 지불하고 집을 수리했으며 썩은 나무를 곤명지로 보낸 뒤에 문을 닫아걸고 학업에 열중했다. 3년 뒤에 그는 范陽節度使의 막료가 되었고 7년 안에

冀州刺史가 되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天寶中, 長安永樂裏有一凶宅, 居者皆破, 後無復人住. 暫至, 亦不過宿而卒, 遂至廢破. 其舍宇唯堂廳存, 因生草樹甚多. 有扶風蘇暹, 恹恹遽苦貧窮, 知之, 乃以賤價, 於本主質之. 才立契書, 未有一錢歸主. 至夕, 乃自攜一榻, 當堂鋪設而寢. 一更以後, 未寢, 出於堂, 彷徨而行. 忽見東牆下有一赤物, 如人形, 無手足, 表裏通徹光明. 而叫曰: “咄.” 暹視之不動. 良久, 又按聲呼曰: “爛木, 咄.” 西牆下有物應曰: “諾.” 問曰: “甚沒人?” 曰: “不知.” 又曰: “大硬鏹.” 爛木對曰: “可畏.” 良久, 乃失赤物所在. 暹下階, 中庭呼爛木曰: “金精合屬我, 緣沒敢叫喚.” 對曰: “不知.” 暹又問: “承前殺害人者在何處.” 爛木曰: “更無別物, 只是金精. 人福自薄, 不合居之, 遂喪逝, 亦不曾殺傷耳.” 至明, 更無事. 暹乃自假鍬鍤之具, 先於西牆下掘. 入地三尺, 見一朽柱, 當心木如血色, 其堅如石. 後又於東牆下掘兩日, 近一丈, 方見一方石, 闊一丈四寸, 長一丈八寸. 上以篆書曰: 夏天子紫金三十斤, 賜有德者. 暹乃自思: “我何以爲德.” 又自爲計曰: “我得此寶, 然修德亦可禳之.” 沈吟未決, 至夜, 又歎息不定, 其爛木忽語曰: “何不改名爲有德, 即可矣.” 暹曰善, 遂稱有德. 爛木曰: “君子儻能送某於昆明池中, 自是不復撓吾人矣.” 有德許之. 明辰更掘丈餘, 得一鐵甕, 開之, 得紫金三十斤. 有德乃還宅價修葺, 送爛木於昆明池. 遂閉戶讀書, 三年, 爲範陽請入幕, 七年內, 獲冀州刺史. 其宅更無事.)⁷⁾

〈蘇暹〉의 원문에는 우선 제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鐵甕’이라는 두 글자가 분명히 보이며, 그 줄거리 또한 나무 정령의 도움으로 인해 ‘鐵甕’을 얻어 횡재하는 전형적인 이야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彭虎子〉에 비해서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재 또한 분명 ‘靈怪類’에 속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鐵甕兒〉이야기의 本事는 그동안 胡士瑩이 주장해왔던 〈彭虎子〉라기보다는 〈蘇暹〉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2. 大槐王

〈大槐王〉 역시 ‘靈怪類’로 분류되어 있는데, 孫楷第는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이 작품 또한 이미 망실되었다고 기록해 두었다.⁸⁾ 그리고 이 작품의 연원에 대해

7) 李昉 等編, 《太平廣記》, 第8冊, 400卷, 中華書局, 1995년, 3218쪽. 《태평광기》의 원문번역은 김장환·이민숙 등이 옮긴 《태평광기》(學古房, 2004년), 16권, 798-802쪽에서 인용함.

8) 孫楷第, 앞의 책, 4쪽.

세 명의 학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趙景深은 「〈大槐王〉은 唐代 소설인 〈南柯太守傳〉에서 내용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⁹⁾고 했다. 그리고 胡士瑩은 「本事는 唐代 裴鏞의 〈江叟〉에서 나온 것이다」¹⁰⁾라고 했는데, 〈江叟〉는 《태평광기》 416권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周楞伽는 「宋 羅燁이 《醉翁談錄·舌耕敘引》에 수록한 宋人の 話本名目 107종 가운데 〈大槐王〉은 ‘靈怪類’에 나열되어 있는데, 본 편(〈江叟〉)의 전반부 내용을 부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江叟〉 이야기의 주인공은 江叟이지 大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¹¹⁾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위의 내용처럼 기존에 세 학자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四庫全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결과 宋代 朱勝非이 저술한 《紺珠集》 11권에 역시 동일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제목과 관련된 핵심적 구절은 바로 다음과 같다.

江叟가 閩郷의 盤豆館에서 묵을 때 오래된 槐나무 아래에서 귀신이 와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槐王”, 이에 槐나무가 대답을 했다. (江叟夜宿閩郷盤豆館中, 古槐下聞有神來呼: “槐王”, 槐應之也.)¹²⁾

주목할 만한 것은 《紺珠集》에서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분명하게 〈槐王〉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靈怪類’ 화본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괴이한 영물을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태평광기》 416권에 수록된 〈江叟〉 이야기가 단지 제목이 〈槐王〉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靈怪類’에 포함된 〈大槐王〉과 관련이 없다는 주룽가의 의견보다는 호사영의 주장이 더욱 타당함을 알 수 있다.

9) 趙景深, 《中國小說叢考》, 齊魯書社, 1980년, 84쪽.

10) 胡士瑩, 앞의 책, 238쪽.

11) 周楞伽 輯注, 《裴鏞傳奇》, 중국, 上海古籍出版社, 1980년, 95쪽.

12)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子部, 雜家類, 雜纂之屬, 《紺珠集》, 卷十一.

3. 鐵車記

〈鐵車記〉 또한 ‘靈怪類’로 분류되어 있는데, 孫楷第는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이 작품 역시 이미 망실되었다고 했다.¹³⁾ 그러나 필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舊五代史》 22권 〈楊師厚傳〉에 ‘鐵車’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黎陽에서 큰 돌을 캐어 장차 德政을 기록하고자 했는데, 철로 된 수레에 싣고 소 수백 마리를 몰아 끌게 했다. 도착 지점에 이르자 묘소와 초가집들이 모두 훼손되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비석이 왔다(碑來)”라고 했다. 비석이 도착하자 師厚가 죽으니 魏인들이 모두 “슬픔이 왔다(悲來)”라고 생각했다. 末帝가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私庭에서 受賀를 받은 후 이내 魏州를 두 진영으로 나눌 것을 논의했다. 이윽고 친위군대를 수립하였으나 과연 반란이 일어나 外寇를 불러들여서 河朔이 함락되고 宗社를 멸망케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바로 師厚의 불길한 조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又于黎陽採巨石, 將紀德政, 以鐵車負載, 驅牛數百以拽之, 所至之處, 丘墓廬舍悉皆毀壞, 百姓望之, 皆曰: “碑來”. 及碑石纔至, 而師厚卒, 魏人以爲“悲來”之應. 末帝聞其卒也, 于私庭受賀, 乃議裂魏州爲兩鎮. 既而所樹親軍, 果爲叛亂, 以招外寇, 致使河朔淪陷, 宗社覆滅, 由師厚兆之也.)¹⁴⁾

〈楊師厚傳〉에 보이는 이 사건은 송대 이후에도 꾸준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듯 하는데, 가령 宋代의 王庭珪는 《盧溪文集》 21권에 〈楊師厚〉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시를 실어 놓았다.

萬炬千鈺照一城, 수많은 불빛 도성을 비추고
彩舟猶聽棹歌聲. 화려한 배에서는 뱃노래 소리 들리는 듯하네.
鐵車空駕黎陽石, 철마차 꺾이리 몰아 黎陽땅의 돌 싣어오니
豈悟碑來禍已成.¹⁵⁾ 비석이 와서 재앙이 될 줄 어찌 깨달았으랴.

이 시구를 통해서 보더라도 〈鐵車記〉와 관련된 내용은 역시 楊師厚와 관련된 이

13) 孫楷第, 앞의 책, 4쪽.

14)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史部, 正史類, 《舊五代史》, 卷二十二.

15)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集部, 別集類, 南宋建炎, 至德祐, 《盧溪文集》, 卷二十一.

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史書에 수록된 내용이나 詩의 本事는 흔히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창작하거나 편집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바로 나엽이 〈小說開關〉에서 강조한 것처럼 당시 소설업에 종사하여 이야기를 꾸미고 전파하는 이들은 역대 史書에 두루 통달해야 하고, 또 많은 시구를 알고 있어야 하며, 역사적 사건이나 시구에 포함된 조그마한 사실도 수천 회로 늘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비범한 재주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鐵車記〉의 本事는 楊師厚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주요한 이야기의 제재가 되고 주된 테마는 큰 돌이 불러온 불행한 조짐으로 여겨진다. 특히 〈楊師厚傳〉에서 발음상 ‘碑來’와 ‘悲來’를 호응시킨 것은 나름대로 신비한 색채와 재미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인 결과 당시에 유행하던 ‘靈怪類’의 話本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獨行虎

〈獨行虎〉는 ‘公案類’로 분류되어 있으며 孫楷第는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이 작품은 이미 망실되었다고 설명을 달아놓았다.¹⁶⁾ 그런데 明代에 간행된 《清平山堂話本》에 실려 있는 〈曹伯明錯勘賊記〉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이 작품과 〈獨行虎〉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 대강의 줄거리는 曹伯明이란 사람이 기녀인 謝小桃에게 장가를 갔으나 謝小桃은 오히려 도적인 宋林 등과 짜고 曹伯明을 모함에 빠뜨려 해치려 했다. 후에 蒲左丞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 비로소 진상이 밝혀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獨行虎〉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는 바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도적 宋林의 綽號가 바로 ‘獨行虎’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그 내용 또한 분명 公案類에 속하기 때문에 〈曹伯明錯勘賊記〉는 아마도 《취옹담록》에 보이는 〈獨行虎〉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품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한편 〈曹伯明錯勘賊記〉의 시작 부분에 보면 ‘說話大元朝至正年間’으로 되어 있는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元代의 작품으로 주장할

16) 孫楷第, 앞의 책, 11쪽.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胡士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永樂大典》13947권에 戲文 〈曹伯明錯勘賊〉이 실려 있다. 《錄鬼簿》上卷에 武漢臣·紀君祥·鄭廷玉 세 사람 또한 모두 이와 관련된 희극작품을 갖고 있었다. 《永樂大典》20754에 雜劇 18조에 역시 〈曹伯明錯勘賊〉이 실려 있으나 모두 전하지는 않는다. 鄭廷玉 희극의 ‘正名’은 ‘蒲丞相大斷案’인데 화본과 동일한 제재 임이 충분히 증명된다. 이 이야기는 元代에 성행했고, 화본에서 말하는 것은 至正年間(1341-1368)의 일이다. 생각건대, 《錄鬼簿》는 至順元年(1330) 이전에 씌어졌으며, 그 시기는 武漢臣 등이 이미 ‘이미 작고하신 선배님들’의 대열에 있었기 때문에, 雜劇은 당연히 元代 仁宗 皇慶 延祐(1312-1320)에 지어졌을 것이며, 이 이야기의 발생은 그보다 훨씬 빠른 것이기 때문에 화본 가운데 至正이라는 연호는 분명 틀린 것이다.¹⁷⁾

胡士瑩의 이 분석은 〈曹伯明錯勘賊記〉에 보이는 ‘大元朝至正年間’이라는 시점이 이 이야기가 최초로 창작된 시점의 시간적 배경으로 볼 수 없으며, 이야기의 발생 시점은 분명 이보다는 빠른 宋代라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명대에 간행된 《清平山堂話本》에 수록된 〈曹伯明錯勘賊記〉은 元 仁宗 皇慶 延祐(1312-1320) 사이에 만들어졌으나,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이보다 훨씬 이른 宋代에 이미 이 이야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원대에 들어와서 일련의 사람들이 戲劇으로 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읽기 편한 화본으로 수정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曹伯明錯勘賊記〉는 비록 원대 이후 사람들에 의해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그 本事는 바로 《취웅담록》에 보이는 〈獨行虎〉의 내용일 것으로 사료된다.

5. 季鐵鈴

〈季鐵鈴〉은 ‘朴刀類’로 분류되어 있는데, 孫楷第는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이

17) 《永樂大典》卷一三九七四戲文一著錄有〈曹伯明錯勘賊〉一本; 《錄鬼簿》卷上 武漢臣·紀君祥·鄭廷玉 三人也都有此劇(鄭作題〈復勘賊〉). 《永樂大典》卷二零七五四雜劇一八亦收〈曹伯明錯勘賊〉一本, 但均不傳. 鄭劇的‘正名’是‘蒲丞相大斷案’, 足證與話本爲同一題材. 這個故事, 元代盛傳, 話本說是至正(1341~1368)年間事. 按: 《錄鬼簿》作於至順元年(1330)以前, 其時武漢臣等已在‘前輩已死名公才人’之列, 雜劇當作於元仁宗皇慶延祐(1312~1320)間, 這個故事的產生當更早一些, 話本中的至正年號, 一定是弄錯了. (胡士瑩 위의 책, 291-292쪽.)

작품 역시 이미 망실되었다고 기록해 두었다.¹⁸⁾ 필자가 '鐵鈴'을 주제로 검색한 결과 《태평광기》 105권에 〈三刀師〉라는 작품에서 해당 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季鐵鈴〉이 '朴刀類'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三刀師〉의 내용은 〈季鐵鈴〉의本事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唐나라 사람 삼도사는 俗姓은 張이고 이름은 伯英이다. 乾元年間에 壽州의 健兒(변경지역에서 수자리를 서는 병사)가 되었는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潁州에 계신 아버지를 뵈려고, 官馬를 훔쳐 타고 갔다. 그런데 그는 淮陰에 이르러 그곳을 지키는 군사에게 잡혀서, 刺史인 崔昭가 그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腰斬刑에 처하게 했다. 당시 사형수의 목을 자르던 망나니는 '뛰어난 칼잡이[能行刀]'라고 불렀는데, 그는 [장백영에게 칼을 한 번 내리치고 또] 다시 내리쳐도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이에 날카로운 칼로 바꾸어 온 힘을 기울여 장백영을 베었지만 여전히 상처 하나 입히지 못했다. 망나니가 놀라서 말했다. "내가 칼로 그를 베려고 해도 그의 몸에 닿으면 손이 떨리니, 무엇 때문이지 알지 못하겠구나." 망나니는 황급히 최소에게 가서 이를 고했다. 최소가 장백영에게 까닭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 "예전에 저는 15살에 葷菜와 血食을 끊고 10여 년 동안 《금강경》을 외웠습니다. 胡亂이 일어난 이래로 軍中에 있었기에 더 이상 경을 외우지 못하다가 어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막중한 죄를 지었기에 오직 한마음으로 경을 외웠을 뿐입니다." 최소는 탄식하고 그를 놓아주었다. 장백영은 마침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큰 鐵鈴을 들고 다니며 탁발했으며, 천 명에게 바치는 음식도 하루 만에 마련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삼도사'라고 부르며 起敬菩薩이라고 했다. (唐三刀師者, 俗性張, 名伯英. 乾元中, 爲壽州健兒. 性至孝, 以其父在潁州, 內盜官馬往以迎省. 至淮陰, 爲守遏者所得, 刺史崔昭令出城腰斬. 時屠劊號'能行刀', 再斬, 初不傷損. 乃換利刀, 罄力砍, 不損如故. 劊者驚曰: "我用刀砍, 至其身則手懦, 不知何也." 遂白之. 昭問所以, 答曰: "昔年十五, 曾絕葷血, 誦《金剛經》十餘年. 自胡亂以來, 身在軍中, 不復念誦, 昨因被不測罪, 唯志心念經爾." 昭歎息舍之. 遂削髮出家, 著大鐵鈴乞食, 修千人齋供, 一日便辨. 時人呼爲'三刀師', 謂是起敬菩薩.)¹⁹⁾

이 작품은 원래 《태평광기》에서는 '金剛經'과 관련이 있는 고사들을 따로 분류한 13개 작품 가운데 하나로써 불교를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백영의 신분은 '壽州健兒'이고, 또 그 대척점에 선 사

18) 孫楷第, 앞의 책, 12쪽.

19) 김장환 옮김, 앞의 책, 5권, 149-150쪽.

형수의 목을 자르는 망나니의 별호가 ‘能行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캐릭터만 보더라도 이 작품이 ‘朴刀類’화본의 특징을 가지는 줄거리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 보인다. 게다가 장백영은 스님으로 출가한 후에 큰 鐵鈴을 들고 다니며 걸식했다는 점 또한 〈季鐵鈴〉이란 제목과 서로 호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엽이 〈소설개벽〉에서 밝힌 것처럼 이야기꾼이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책이 바로 《태평광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태평광기》에 수록된 〈三刀師〉는 《취옹담록》에 수록된 〈季鐵鈴〉과 관련성이 가장 큰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西山

‘西山聶隱娘’은 ‘妖術類’로 분류되어 있다. ‘西山’이란 두 글자와 ‘聶隱娘’이라는 세 글자가 이어져 있는데, 바로 孫楷第가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西山聶隱娘’ 다섯 글자를 한 편의 話本名으로 묶어서 정리한 이래 중국소설 관련 서적과 논문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원용했다. 그러나 譚正璧은 《話本與古劇》에서 ‘西山’과 ‘聶隱娘’을 각각 따로 한 편의 작품명으로 분리해서 짧게 언급한 바 있는데, ‘西山’이란 작품명에는 분명 빠진 글자가 있다고 의심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다린다고 했다.²⁰⁾ 현재 《태평광기》 194권에 수록된 〈聶隱娘〉은 바로 唐代 裴鉞의 《傳奇》가 그 출처로 되어 있으며, 이야기의 주인공과 제목이 완전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취옹담록》에 수록된 〈聶隱娘〉의 本事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태평광기》에 수록된 〈聶隱娘〉에서는 ‘西山’이라는 공간적 배경이나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필자는 譚正璧의 문제 제기를 실마리로 《취옹담록》에 수록된 ‘西山聶隱娘’을 ‘西山’과 ‘聶隱娘’의 두 작품으로 나누어서 다시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西山’을 주제로 검색한 결과 역시 《태평광기》 14권에 〈許眞君〉이라는 작품에서 해당 주제를 찾을 수 있었는데, 전체 내용 가운데 ‘妖術’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과 ‘西山’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명시된 대목을 발췌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후에 허진군은 豫章에서 위엄 있고 반듯하게 생긴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자칭 愼郎이라 했다. 허진군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20) 譚正璧, 《話本與古劇》, 上海古籍出版社, 1985년, 39쪽.

알아챘으나, 그가 잠시 돌아보는 사이에 젊은이가 가졌다고 했다. 허진군이 문인들에게 말했다. “방금 본 젊은이는 교룡의 정령이다. 내가 江西 지방에서 일어나 홍수의 피해를 생각해 보건대, 그를 쳐 죽이지 않으면 또 달아나 숨을까 걱정되는 구나!” 교룡의 정령은 진군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龍沙洲의 북쪽에 숨어 누런 소로 변했다. 허진군은 도인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제자 施大王에게 말했다. “저 정괴가 누런 소로 변했으니 나는 지금 검은 소로 변해서 수건을 그 어깨에 두를 테니 그것으로 표식을 삼자. 만약 소가 마구 덤비거든 당장 검은 소를 베어 죽이거라.” 허진군은 변신하고 떠나갔다. 잠시 뒤에 정말 검은 소가 누런 소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이에 시대왕은 소를 향해 검은 휘두르며 그 왼쪽 넓적다리를 찔렀고, 이를 피해 누런 소는 성 서쪽의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교룡의 정령은 다시 우물에서 나와 달아나 검은 소로 둔갑한 허진군도 그 뒤를 따라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곧장 潭州로 돌아가서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

이에 앞서 교룡의 정령은 미소년으로 변했는데 총명하면서도 준수하고 보화가 많았다. 교룡의 정령은 潭州刺史 賈玉에게 곱고 단정한 딸이 있고, 또 자사가 딸에게 좋은 사위를 짝 지어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교룡의 정령은 널리 재화와 보물을 사용하여 賈公(賈玉)의 가까운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마침내 좋은 짝을 얻었다. 그 후로 교룡의 정령은 그의 처와 함께 관아의 후원에서 살았다. 교룡의 정령은 매년 봄과 여름 사이에 늘 강호를 여행하기를 청했고, 늘 수만 가지의 진기한 보물과 재화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賈使君(賈玉, 使君은 刺史나 太守에 대한 존칭)의 친인척과 하인들까지도 이에 힘입어 모두 부호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룡의 정령이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도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집안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사이에 빈객을 접대하는 사람이 성이 허씨이고 자가 경지라는 도사가 찾아와 사군을 뽑고 싶어 한다고 알려왔다. 가공은 급히 나가 보았다. 허진군이 가공에게 말했다. “듣자 하니 사군께서 훌륭한 사위를 맞이하셨다고 하기에 잠시 뽑기를 청합니다.” 가공은 愼郎에게 얼른 나와서 도사를 만나 뵈라고 했다. 신랑은 허진군이 두려워 병을 핑계 삼고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자 허진군이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호의 해로운 요물인 교룡의 정령이 어찌 감히 그 모습을 감추는가!” 교룡의 정령은 본 모습을 드러내고 당 아래로 나왔다가 잠시 후에 縣吏와 병사들에게 죽음을 당했다. 허진군은 또 그 두 아들을 불러내어 물을 뽑었다. 그러자 그 두 아들은 바로 작은 교룡으로 변했다. 처 가씨의 몸이 변하려는 순간 가씨의 부모는 허진군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결국 허진군은 神符를 주어 그녀를 구해 주었다. 그리고는 그 집 밑을 몇 丈 파게 했는데, 이미 끝없이 옆으로 퍼져 있었다. 허진군이 가옥에게 말했다. “당신 집의 골육지친들은 하마터면 모두 물고기와 자라의 밥이 될 뻔했소. 지금 빨리 옮겨야지 잠시라도 머물러서는 안 되오.” 가옥이 급히 집을 옮기자 순식간에 관사가 무너지고 흰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흔적이 완연히 남아 있다.

허진군은 東晋 孝武帝 太康 2년 8월 1일에 洪州의 西山에서 집안 식구들 42명과 함께 집을 뿔아 하늘로 올라가 떠나갔다. 돌로 만든 함과 약 뿔는 절구 각각 한 개와 수레바퀴 한 개가 허진군이 사용했던 비단 휘장과 함께 구름 속에서 그의 옛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마을 사람은 그 땅에 遊帷觀을 지었다. (後於豫章遇一少年, 容儀修整, 自稱慎郎. 許君與之談話, 知非人類, 指顧之間, 少年告去. 眞君謂門人曰: “適來年少, 乃是蛟蜃之精, 吾念江西累爲洪水所害, 若非翦戮, 恐致逃遁.” 蜃精知眞君識之, 潛於龍沙洲北, 化爲黃牛, 眞君以道眼遙觀, 謂弟子施大王曰: “彼之精怪, 化作黃牛, 我今化其身爲黑牛, 仍以手巾挂膊, 將以認之. 汝見牛奔鬪, 當以劍截彼.” 眞君乃化身而去. 俄頃, 果見黑牛奔趁黃牛而來, 大王以劍揮牛, 中其左股, 因投入城西井中. 許君所化黑牛, 趁後亦入井內. 其蜃精復從此井奔走, 徑歸潭州, 却化爲人. 先是, 蜃精化爲美少年, 聰明爽雋, 而又富於寶貨. 知潭州刺史賈玉, 有女端麗, 欲求貴婿以匹之. 蜃精乃廣用財寶, 賂遺賈公親近, 遂獲爲伉儷焉. 自後與妻於衙署後院而居. 每至春夏之間, 常求旅游江湖, 歸則珍寶財貨, 數餘萬計, 賈使君之親姻僮僕, 莫不賴之而成豪富. 至是, 蜃精一身空歸, 且云, 被盜所傷. 舉家嘆惋之際, 典客者報, 有道流姓許字敬之, 求見使君. 賈公遽見之. 眞君謂賈公曰: “聞君有貴婿, 略請見之.” 賈公乃命慎郎出與道流相見. 慎郎怖畏, 托疾潛藏. 眞君厲聲而言曰, “此是江湖害物, 蛟蜃老魅, 焉敢遁形!” 於是蜃精夏變本形, 宛轉堂下, 尋爲吏兵所殺. 眞君又令將其二子出, 以水噴之, 卽化爲小蜃. 妻賈氏, 几欲變身, 父母懇眞君, 遂與神符救療. 仍令穿其宅下丈餘, 已旁巨无際矣. 眞君謂賈玉曰: “汝家骨肉几爲魚鼈也, 今須速移, 不得暫停.” 賈玉倉皇徙居, 俄頃之間, 官舍崩沒, 白浪騰涌. 卽今旧迹宛然在焉. 眞君以東晋孝武帝太康二年八月一日, 於洪州西山, 舉家四十二口, 拔宅上升而去. 唯有石函、藥臼各一所, 車轂一具, 與眞君所御錦帳, 夏自云中墮於故宅, 鄉人因於其地置游帷觀焉.)²¹⁾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許眞君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妖術類’에 속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허진군의 식구들 42명이 한꺼번에 하늘로 올라가버린 기이한 일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후 ‘遊帷觀’이라는 道觀을 세운 장소가 바로 ‘西山’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만약 〈西山〉과 〈聶隱娘〉이 각각 독립된 두 편의 작품이라면 《태평광기》 14권에 수록되어 있는 〈許眞君〉이 바로 〈西山〉의 本事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작품으로 사료된다.

21) 김장환 옮김, 앞의 책, 1권, 378-382쪽.

7. 沙河院

〈沙河院〉은 ‘公案類’로 분류되어 있는데 孫楷第는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이 작품은 이미 망실되었다고 설명을 달아놓았다.²²⁾ 이와 관련해서 근래의 학자 陳桂聲은 《話本敍錄》에서 이 이야기의本事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다만 「沙河院은 사찰을 가리키는 듯하다」²³⁾고 짧은 분석을 덧붙였다. 필자가 자료를 검색한 결과, 《兪世明言》 24권 〈楊思溫燕山逢故人〉이란 작품에서 ‘沙河院’과 관련된 ‘河沙院’이란 이름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行者가 답하기를, “저는 본시 大相國寺의 河沙院의 行者이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다시 行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나오리께서는 의자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行者答言: 某乃大相國寺河沙院行者, 今在此間復爲行者. 請官人坐於凳上, 閒話則箇.)²⁴⁾

이와 더불어 宋 劉頌의 《彭城集》 16권 수록된 〈景德寺河沙院錢蘇安上知泰州劉元忠河北都運, 分題得無字〉²⁵⁾라는 제목의 시에서도 역시 ‘河沙院’이란 명칭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두 기록을 놓고 볼 때 ‘沙河院’은 아마도 ‘河沙院’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불교의 사찰명이 아니라 사찰에 딸린 別院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옹담록》에 수록된 〈沙河院〉이란 작품명은 ‘河沙院’의 誤記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는 향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宋元 시기에 유행했던 작품으로 羅燁의 《취옹담록》에 수록된 話本存目 가운데서 해당 작품 제목의本事라고 추정할 만한 검색어나 관련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몇몇 작품을 고찰해보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22) 孫楷第, 앞의 책, 12쪽.

23) 陳桂聲, 《話本敍錄》: “沙河院, 或指佛寺”, 珠海出版社, 2001년, 104쪽.

24) 馮夢龍, 《兪世明言》 24권 〈楊思溫燕山逢故人〉, (대만)三民書局, 1998년, 411쪽.

25)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集部, 別集類, 《彭城集》卷十六.

바로 나엽이 〈小說開闢〉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해서 《太平廣記》와 역대 史書 및 詩를 비롯해서 《四庫全書》 등에서 관련된 검색어를 찾고 해당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鐵甕兒〉·〈鐵車記〉·〈季鐵鈴〉·〈西山〉의 작품에 대해서는 《太平廣記》와 역대 史書 등을 통해 깊은 관련성이 있는 本事を 발굴하게 되었다. 그리고 〈大槐王〉와 〈獨行虎〉 두 작품과 관련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후, 해당 작품들의 本事が 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해 그 증거가 될 만한 대목과 보충 설명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沙河院〉이란 작품에 대해서는 제목상의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沙河院’은 아마도 ‘河沙院’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불교의 사찰명이 아니라 사찰에 딸린 別院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위에서 밝힌 일곱 작품에 대해서 초략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에 논의된 학설에 대해서 보충과 수정을 가하고 일부 새로운 결과물을 얻었다. 비록 분석의 대상이 된 작품수가 《취옹담록》에 수록된 話本存目 가운데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연구와 논의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대로의 성과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기존에 주로 중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일단락이 된 작품들을 제외하고 그 本사와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話本存目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진행한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치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소설사에서 송원 시기에 유행한 화본의 면모를 밝히는데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와 성과물이 중국소설사에서 문언소설이 백화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다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參考文獻】

- 羅燁 編, 《醉翁談錄》, 대만, 世界書局, 1965.
 李昉 等編, 《太平廣記》, 중국, 中華書局, 1995.
 蘇軾, 《東坡志林》, 중국, 中華書局, 1997.
 馮夢龍, 《喻世明言》, 대만, 三民書局, 1998.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중국, 中華書局, 1980.

- 趙景深, 《中國小說叢考》, 중국, 齊魯書社, 1980.
周楞伽 輯注, 《裴劍傳奇》, 중국, 上海古籍出版社, 1980.
陳桂聲, 《話本敘錄》, 중국, 珠海出版社, 2001.
譚正璧, 《話本與古劇》, 중국, 上海古籍出版社, 1985.
羅燁 編, 이시찬 옮김, 《醉翁談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宋)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學古房, 2004.
김만중 지음, 심경호 옮김, 《西浦漫筆》, 2010.

【中文提要】

《醉翁談錄》多著錄有宋元話本的名目, 但其中很多話本已經亡佚, 雖經孫楷第·胡士瑩·趙景深等學者多方高辨, 有些話本的眉目漸漸清晰起來, 可對於其中絕大部分作品來說, 仍然很難知道其講述的究竟是怎樣的故事. 本文便希望在前輩學者的研究成果基礎上, 探尋出若干面目難深的話本的本事, 以期對宋元話本的研究有所裨益.

【主題語】

《醉翁談錄》, 話本, 宋元小說, 小說引子, 小說開關, 羅燁, 本事

투고일: 2012. 1. 12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
